

2026.08.30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보아스와 롯
본문: 롯기 4장1-17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 롯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잃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살던 사사시대의 살던 사람이다. 이방인 롯이 엘리멜렉의 집에 결혼을 하게 되어 그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 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 그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는 인생으로 축복하신다. 인생의 문제가 자신을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과정이 된 것이다. 가나안으로 오게 된 롯은 '기업 무를 자'의 제도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 인생은 우상 숭배하던 모압 여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축복을 받게 되었다.

<본론>

1.기업 무를 자와 씨 언약

▶ 시어머니 나오미는 롯이 밖에 나가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을 보고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대해 설명을 해준다.[롯2:20] 롯은 이방인으로 기업 무를 자의 제도의 대해 잘 모르기에 나오미가 설명해 주는 것이다. 보아스가 롯에 대한 기업 무를 책임의 대한 약속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롯3:9],[롯3:12-13] 기업 무를 자라는 내용은 레위기 25장 기록하고 있다. 무르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고 그 뜻에는 '구원해 내다' '친족 구

원자' (kinsman redeemer) 뜻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친족을 위해 값을 치러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되찾는 것을 기업 무를 자라고 하는 것이다. 또 형제나 자식이 죽어 족속이 위태로울 때 가까운 친족이 결혼하여 재산과 족속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의 내용을 나오미가 롯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도 이들을 위해 책임을 무르는 이 제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이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 언약을 붙들게 하는 것이다.

2.보아스와 롯을 통해 언약의 이루심

▶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 따라 자기 생각, 판단을 따라가는 추세가 있는 시대였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가정도 자기 기업을 다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다 무너지고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는 어려움을 만난다. 남은 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다 하면서 이 가정과 롯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다. 기생 라합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을 때 정탐꾼 두 명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 도와주고 보호하면서 구출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인 것이다. 라합은 아들 보아스에게 언약을 잘 전달했

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이방 여인 롯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임했던 은혜를 생각을 했을 것이다.[롯2:12] 모압 여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한 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가정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의 가문의 족보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라합과 롯은 붙들고 언약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된다.[마1:1,5-6] 롯은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시대의 사람으로 오시기 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이다. 이후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사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인도받길 원하신다. 자기 소견의 옳은 삶이 아니라 보아스와 롯 처럼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하여 가정과 후대의 삶이 언약의 삶이 되고 성취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3.언약과 무관한 아무개가 아닌 언약 이를 구별된 사람

▶ 보아스는 롯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무를 책임을 하고자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할 일이 있었다.[롯3:12-13]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자가 있기에 그 의사를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이 되어야 하기에 보아스는 우선권 있는 자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된다. 우선권이 있던 자를 성경에서는 아무개라고 기록한다. 기업 무를 자의 최고의 자격자라고 할 지라도 아무개로 처리가 된 것은 기업

무를 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의 여부를 따라 결정하는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 이었던 것이다.[롯4:1] 언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수많은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많다. 교회도 이런 아무개가 많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돌아봐야 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인가! 암흑 속에서 롯과 보아스처럼 기억 될 하나님께 발견된 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보아스와 롯처럼 언약을 알고 구원받을 축복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는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알고 계신다.[사43:1] 이 세상을 살리길 원하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을 귀히 보신다.[단12:3] 우리는 어떤 아무개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고 바르게 서야 한다. 세상은 목자 이 자기 소견으로 헤메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이들을 살릴 자를 찾고 계신다.[마9:36-38] 이 시대의 보아스와 같은 언약을 이룰 일꾼이 있는지 찾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어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롯과 같은 응답 받는 인생 되길 원한다.